

한 땅 두 아파트

허술한 주택법에 재산권 30년간 묶이고 땅 문제 해결없이 사업 추진...조합원 피해

용두동 부지, 토지 사업권·소유권 건설사 달라 법 개정전 사업권 따내 수십년 방치 제재 못해

한 건설사가 추진해온 주택건설 사업이 30년째 표류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30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또 다른 건설사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해당 사업부지와 일부 중첩되는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 조합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일보 2015년 10월 15일자 6면〉 9일 광주시와 북구 등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 1986년 6월 광주시의 허가를 받아 북구 용두동 산87-1번지 일원 3만1966㎡의 부지에 15개동 65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당시 A건설사는 해당 부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며 사업권은 G건설로 넘어갔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현재까지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은 건물 신·축증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아파트 건립이 지연되자 소유자 20여명은 지난 2012년 허가 취소 민원을 광주시와 북구에 제기했고, 북구는 'G건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그해 12월께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그러나 G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고, 북구는 지난 2월 대법원 항소를 포기했다.

2003년 개정된 주택법에는 '사업 승인 이후 2년 내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법원은 'G건설이 사업 승인을 받은 1986년 당시 주택법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어 사업 승인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민들은 "1986년 승인한 사업권이 30년간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라며 "소유권도 없는 건설사의 횡포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S건설이 G건설의 사업부지

와 일부 중첩되는 용두동 499번지 일원 3만2580㎡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형태의 아파트(528세대) 건립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S건설이 G건설의 사업부지와 중첩되는 6700㎡ 부지에 대한 사업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지난해 10월 세대당 5000여만원을 받고 450여 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S건설은 사업부지 문제를 조합 설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한 북구는 지난해 S건설에 'G건설과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두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세대들은 "G건설의 30년 된 무형의 사업권 때문에 집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광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대는 1700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내고 조합을 탈퇴하

■ 두 건설사 겹치는 아파트 부지



기도 했다.

S건설은 지난 2월에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4월 말까지 G건설과 문제를 해결하고, 5~6월께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두 건설사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G건설이 중첩되는 부지의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G건설이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80% 이상의 소유권 또는 토

지 사용 승낙서를 다시 받아 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30년째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동의해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G건설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 사업부지가 90년대 초반 첨단산업단지로 묶이고, 또 사업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가거나 북구와의 소송 때문에 지연된 것"이라며 "부지를 중첩해 영업 방해한 S건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건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첩 부지를 빼고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소유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보는지를 먼저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G건설의 30년된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중첩된 부지를 제외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변경 신청 방법이 있는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어르신들에 짜장면 나눔

광주 풍암동 중화요리번영회는 9일 서구 풍암동 신암마을 앞 근린공원에서 '어버날 짜장면 나눔행사'를 열었다. 번영회 소속 중식당 조리사들과 풍암동자치회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짜장면과 군만두를 배식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선출방식 '직선제' 결정

교수·직원·학생 직접 투표...19일 이사회서 확정

차기 조선대 총장은 직선제로 선출키로 했다. 교육부 '총장 간선제 선출' 방침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유치 과정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0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달 열린 제 75차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 구성원 직접 투표를 통해 뽑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전임교원의 경우 모두 투표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결의하는 한편, 투표에 참여할 전체 구성원 숫자, 기준 등은 오는 19일 이사회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지난 15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는 정년 계열 전임교원 698명이 투표(1인1표)에 참여한 바 있다. 구성원별 참여 비율은 전임교원을 70%로 정하고 직원·학생·동문 등이 나머지 30%를 채우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이사 4명(김용억·김창훈·김현정·이호복 이사), 구성원 대표 4명, 법인 사무처장 등 9명으로 심층면접 심사위원회를 꾸려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면접을 진행키로 했다.

이사회는 앞서 이들 구성원 투표로 2인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3 달뜨기 08:42
해질녘 19:26 달지기 23:01

우산 챙기세요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14/19	성	14/16
목포	13/17	순	15/17
여수	15/16	영	12/18
나주	13/19	진	13/17
완도	14/17	전	13/18
구례	13/18	군	14/16
강진	14/17	남	14/16
해남	13/17	흑	11/15
장성	13/18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	북서	0.5
남부	북서	0.5~1.5	북서	0.5~1.5
남해	서	0.5~1.0	북서	0.5~1.5
서부	북서	1.0~1.5	북서	1.0~2.0
남해(서)	북	1.0~2.0	북서	1.5~2.5

◇생활지수

주요	주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날씨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날씨	☀	☀	☀	☀	☁	☁	☀
날씨	13/25	13/25	13/24	14/25	14/24	15/21	15/26

2018 전문대 입시 85% 수시로

학생부 전형 70.6%·21만129명 모집...모든 학교 일정 동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에게 해당되는 '2018학년도 전문대 입시'도 전체 모집 인원의 85%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정시'와 '수시'를 포함해 '학생부 우수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70.6%에 이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9일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전문대학들의 2018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21만129명으로 2017학년도(21만4857명)보다 2.2%(4728명) 줄어든다.

136개 대학이 수시모집으로 17만8861명(모집 인원의 85.1%)을 뽑고 정시모집 인원은 3만1268명(모집 인원의 14.9%)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수능·면접·실기·서류를 중심으로 한 전형 요소 중 2개 이내 요소만 반영한다.

학생부(교과 성적+비교과 영역 활동) 위주 전형으로 전체인원의 70.6%인 14만8336명을 뽑고 '면접위주 전형'은 2만1369명(10.2%), '수능위주 전형' 1만4542명(6.9%), '서류위주 전형' 1만9163명(9.1%), '실기위주 전형' 6719명(3.2%) 등으로 선발한다.

특히 취업난 속에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전문대학으로 입학하는 '유턴족' 등을 고려, 직장인이나 경력 단절 여성, 퇴직자·은퇴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특

■ 광주·전남 주요대학별 모집인원

구분	총계		2018 모집인원	2017 모집인원
	일반 전형	특별 전형		
광주보건대	89	1,274	1,363	1,363
동강대	56	1,633	1,689	1,585
목포과학대	580	500	1,080	1,117
전남과학대	1,037	411	1,448	1,447
전남도립대	662	461	1,123	937
조선간호대	139	54	193	193
조선이공대	21	1,964	1,985	2,257

별전형으로 86개 대학에서 3945명을 선발키로 했다. 2017학년도 성인 재직자 및 만학도 특별전형(86개 4058명)에 견줘 113명 감소했지만 전체 모집인원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전문대학측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했다는 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설명이다.

2018학년도 입시는 모든 전문대가 모집인원을 통일해 운영한다.

수시 1차는 내년 9월 11~29일, 수시 2차는 내년 11월 7~21일 원서를 접수해 내년 12월 15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시모집은 내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018년 2월 6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천만송이 세계명품 장미,
그 동화나라 속으로

제6회 곡성 THE 6TH INTERNATIONAL ROSE FESTIVAL, GOKSEONG

세계가 향미 축제

2016. 5. 20. 금 - 29. 일 10일간 곡성섬진강기차마을

www.simcheong.com
안내·문의 (061)360-8252